

## 정치사상사, 역사인가 철학인가? : Skinner와 Pocock의 역사적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종선  
정치외교학과

### <요 약>

본 논문은 역사로서의 정치사상사 기술을 주장한 Quentin Skinner와 J.G.A. Pocock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철학으로서의 정치사상사, 그리고 이의 대안으로 제시된 역사로서의 정치사상사의 개념을 설명하고, 정치사상사의 역사적 연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시각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힌다. 특히 이들의 논의에서 핵심적 용어로 등장하는 담론(discourse), 콘텍스트(context), 언어(language)의 개념이 심도있게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조류와 관련하여 이러한 역사적 방법이 우리 정치사상사 연구의 풍토에서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는지를 논한다.

---

## Quentin Skinner and J.G.A Pocock on studying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You, Joung-Seon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nacy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Historical Methods that have been proposed by Quentin Skinner and J.G.A. Pocock in studying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Their conception of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s a "hisotory" rather than a "philosophy", and their "methods" of building such a history, will be discussed. Special emphasis will be given to illuminating some key concepts in their

methods, such as 'discourse', 'context', and 'language'. Implications of their "methods" for the "Korean" historians of political thought, both of Western and Confucian - or Korean - traditions, will be discussed as concluding remarks.

## I.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정치철학에서 정치사상사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극단적 분석철학의 입장에 서지 않는 한 정치철학자는 그의 논의에서 과거 위대한 정치사상가들의 견해를 인용한다.

정치철학자가 과거의 정치사상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정치철학적 주제에 대해 과거 위대한 사상가들로부터 어떤 시사나 도움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철학자는 정치에 대해 같은 철학적 질문들을 던졌던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현재에 되살려, 그들과의 상호비판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보편타당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에 있어 정치사상사 연구는 다만 그러한 위인들이 과거에 살다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좀 단순화된 느낌이 있지만 정치사상사 연구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이같은 이미지는 지금까지의 정치사상사 연구의 전통에 비추어 사실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정치사상사라는 학문분야가 이러한 목적으로써 출발하였고 아직도 많은 정치사상사자들은 - 특히 한국의 경우 - 이러한 전제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아마 앞으로도, 정치사상사가 정치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는 한에 있어서, 정치사상사 연구에서 어떤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의도와 목적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위인들로부터 '현재의' 정치철학적 문제들에 대해 배우고 시사를 얻기 위함이 정치사상사 연구의 압도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들"<sup>1)</sup>에 대해서는 좀더 철학적이고 역사학적인 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아가 정치사상사 연구에 현실적이고 현재적이고 철학적인 것 외에 다른 의미나 목적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일반적인 역사의 연구에서도 그러하지만 현재적이고 철학적인 관심이 정치사상사의 왜곡과 빈곤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 것일까?

서구 학계에서 정치사상사 연구의 목적과 본질, 방법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질문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폭넓게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있어 왔다. 1980년대 들어 목격되는 정치사상사 연구의 '혁명'<sup>2)</sup>도 사실은 이처럼 수십년에 걸친 학문적 논의의 과정을 통해 그 씨앗이 배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정치사상사 연구는 이의 본질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술의 양식과 언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Sabine 류의 정치사상사 기술은 이미 박물관의 진열품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사실 서구 정치사상사 연구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질문들은 우리에게 의해 먼저 제기되었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학계에서 이러한 논의가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 학계의 논의조차도 제대로 알고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한 마디로 정치사상사의 학문

1. Lorenz Krueger, "Why do we study the history of philosophy?," in Richard Rorty et al., eds., *Philosophy in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1984), p.84.

2. 가령 Michel Foucault의 병원의 탄생(Naissance de la clinique) 같은, 기존의 정치사상사적 저술과는 언어와 체계가 전혀 다른 저작이 정치사상사적 저술로 인정된다든지, Friedrich Nietzsche의 '정치'사상이 논의된다든지 하는 것 등에서 이러한 '혁명'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아무튼 정치철학과 사상사 연구가 학문적으로 커다란 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적 정체(identity)에 대한 우리의 자기비판적 성찰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한국적 정치상황에 의해 부여된 어떤 급박한 현실적 요구들이 정치학자들로 하여금 이런 한가하고 순수학문적으로만 보이는 관심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한가한’ 관심일 수만은 없다. 정치사상사가 무엇이고 이를 왜,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이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정치사상사적 논의, 그리고 이에서 파생되는 정치철학적 논의들은 절대로 의미와 적실성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 학계에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정치사상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퇴조 내지는 방향상실을 초래하였다고 믿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사상사의 본질과 연구방법을 둘러싼 서구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서구 정치사상사의 학문적 정체성(identity)을 세우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uentin Skinner와 J.G.A. Pocock은 50년대 이후 구미학계에서 정치사상사 연구의 혁명을 선도해온 학자들이며, 그들에 의해 주창된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methods)은 그동안의 비판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상사 연구의 한 유력한 시각과 방법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도전’이 있게 되는 상황적, 이론적 배경, 이들에 의해 촉발된 정치사상사 연구의 ‘혁명’, 그리고 ‘역사적 연구방법’의 철학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 철학으로서의 정치사상사, 그리고 이의 정치철학적 근거

오늘날 대학 교과과정에서 정치학의 한 분야로 확립되어 있는 정치사상사 연구는 그 기원을 대체로 19세기 유럽의 학문적 풍토에서 찾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유럽에서는 헤겔류의 관념적 역사철학과, 이의 영향으로 보편적 역사정신을 탐구하는 통시대적 철학사의 기술이 학자들간에 일대 유행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일부 학자들이 정치사상사라고 하는 정신사의 한 특수분야를 기술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00년을 전후로 유럽과 미국의 각 대학에서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치사상사는 대학 정치학 강좌의 중심분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오늘날 정치사상사 연구에서 주로 취급되는 사상가와 그들의 저술, 그리고 그들의 정치사상에 대한 기술양식의 전형은 이 시기에 확립된 것으로, 지금도 정치사상사의 모범적 교과서로 널리 읽히는 George H. Sabine의 「정치사상사」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1937)은 이러한 초기 정치사상사 연구의 전통을 대표하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를 우리가 정치사상사 연구의 제1기라 부를 수 있다면, 1기의 학문적 특징을 혹자는 ‘그 주제에 있어 다분히 철학적이고, 방법에 있어 사이비 역사적(quasi-historical)이며, 의도에 있어서는 매우 현실적이었다’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sup>3)</sup> 주제에 있어 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사상사가 정치철학의 주요 주제들에 따라 기술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서 정치철학은 현대 정치철학을 말하고, 현대 정치철학의 주제들을 따라 정치사상사를 기술했다는 것은 곧 이러한 주제들의 역사적 보편성(timelessness)이 전제되어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이것은 현대 정치철학이 기초하고 있는 분석철학적 인식론의 토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석철학의 입장에서 국가, 주권, 정치권력, 지배와 복종 등의 정치철학적 개념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실체와 본질을 가지며, 정치사상사는 곧 이러한 정치적 실체들에 대

3. David Boucher, "Histories of Political Thought in the Post-methodological Ag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Vol.XIV, No.2 (Summer 1993), p.301.

한 철학적 언급의 역사로서 이해된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실체들이 다른 사회현상적 실체들로부터, 또한 그 안에서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범주화된 것은 오직 현대 정치철학에 이르러서이며, 이전에는 정치철학이 다른 사상의 영역과 어지럽게 뒤섞이고 개념적으로도 일종의 혼돈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이것은 일면 사고의 능력과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개상태에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각 정치철학자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이 그로 하여금 정치적 실체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사고를 어렵게 했던 이유도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정치사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를 혼란하게 만드는 상황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들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정치사상사 기술은 과거의 정치사상을 역사로부터 떼어내어 보편타당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 곧 “역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sup>4)</sup>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정치사상사 연구가 현실적(practical)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정치적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과거의 정치사상으로부터 구하려 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고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의 정치적 문제들이 끊임없는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 어떤 보편적인 문제들로 환원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오직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치사상사 연구가 주제에 있어 철학적이 되지 않으면 안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통적 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의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과거의 정치사상가들을 “우리중의 한 사람,” “동료 시민,” “같은 학문적 종사자”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정치철학자들을 이성적 대화가 가능한 초역사적 장으로 초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전형적으로 따르고 있는 예로서 Leo Strauss를 중심한 시카고 학파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Strauss의 정치사상사에의 관심은 그가 진단하는 바 유쾌한 문제로 대표되는 “현대 서구문명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sup>5)</sup> 이러한 위기는 “근대 정치철학의 가장 근저에 자리잡은 기본전제”, 곧 평등과 자유를 가장한 정치적 획일주의에서 기원하는 것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오직 과거의 정치사상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sup>6)</sup> Strauss는 특히 고대 그리스의 건강한 공화주의가 현대 서구의 위기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정치적 가치와 제도의 문제에 있어 현대인들과는 다른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이 현재에 적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정치문제들에 대한 언급이어야만 할 것이다. 다행히 고대 그리스의 - 사실은 모든 시대의 - 정치철학은 이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특히 그것과 연계된 정치적 상황이 소멸했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 정치적 상황은 모든 정치적 상황에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정치적 상황들을 “정치적 상황들”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겠는가? ... 고대 (그리스) 정치철학의 중심대상이었던 도시국가가 오늘날 근대국가로 대체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전 정치철학의 타당성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sup>7)</sup>

Strauss에 따르면 정치사상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가

4. Richard Rorty,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Univ. Press, 1979), pp.8-9.

5.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p.907-912.

6. *Ibid.*, p.910.

7. Leo Strauss,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Univ. of Chicago Press, 1980) p.64.

살았던 도시국가가 아닌 국가 - 근대 민족국가 역시 국가라는 실제의 한 역사적 현상에 불과하다 - 라는 보편적 개념에 대한 철학적 시사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그의 도시국가를 통하여 보편적인 국가의 이데아를 말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Strauss에 있어 과거의 정치사상은 이의 보편적인 - 따라서 현재적인 - 타당성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정치사상사 연구는 역사학이 아닌 철학'<sup>8)</sup>이라고 한 그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III. 정치언어의 시공적 특수성과 역사로서의 정치사상사

오랫동안 정치학의 핵심영역으로 군림해왔던 '철학으로서의 정치사상사'는 1950년대 영미 정치학계에서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먼저 정치학의 과학화를 외치는 일군의 행태주의자들 *behavioralists*의 도전이 있었다. 이들은 모델구축 *modeling*, 이론화, 계량화의 기치를 내걸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정치에 대한 어떤 사변적, 또는 역사적 가설도 신리로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물론 이들이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접근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설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행태주의가 60년대에 학계를 풍미하면서 정치사상사와 정치철학은 특히 미국 정치학계에서 급격히 위치가 약화되었으며, 아직도 행태주의적 방법론을 고수하는 미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사는 정치학 교과과정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었거나 먼 주변부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전통적 정치사상사에의 또다른 도전은 정치학자들이 아닌 역사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J.G.A. Pocock, John Dunn, Quentin Skinner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캠브리지대 출신 일군의 역사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전통적 정치사상사 연구에 대한 비판, 이들이 제시한 정치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철학과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서구 정치사상사의 새로운 해석은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사 학계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키면서, 행태주의의 도전으로 침체에 빠진 이들 분야에의 학문적 관심을 다시 고조시켰다.

전통적 정치사상사 연구에 대한 이들의 비판의 단초는 정치사상사가 '역사'가 아닌 '사이비역사'(pseudo-history)로 기술되고 있다는, 역사학자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기존의 정치사상사에 허다한 역사적 사실들이 잘못 기록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역사기술의 오류가 근원적으로 정치사상사가의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현재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적 정치사상사에서 Thomas Hobbes를 해석하는 방식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의 저작 *Leviathan*은 지금까지 "정치공동체에 관하여(Of the Common-wealth)"라는 제목이 붙은 제2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제3장 "기독교적 정치공동체에 관하여 (Of a Christian Common-wealth)", 제4장 "어둠의 왕국에 관하여 (Of the Kingdom of Darkness)"는 Thomas Hobbes의 정치사상 논의에서 거의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없이 *Leviathan* 3,4장의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인 언어 때문이다. 사가들은 근대 정치철학의 태조로 꼽히는 Hobbes가 *Leviathan*에 이러한 비근대적 담론을 포함시킨 이유를 그가 아직도 중세적 사고의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기독교적 예언과 중말론

8. Ibid., pp.56-57.

(eschatology)은 Hobbes 당시 아직도 유럽 지식인들이 정치에 관해 언급할 때 사용했던 개념적 수단(conceptual equipment)의 핵심적 요소였으며 Hobbes 또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주고 있었다.<sup>9)</sup> 그러므로 그가 의식의 혼란상태에서, 또는 마지못해 *Leviathan*의 후반부를 기술했고,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도 - 또는 무시해야만 - 그의 정치사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Leviathan*의 종말론은 그의 정치사상 연구에 핵심적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Hobbes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또 이것이 쉽게 사실로써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의 사상을 대하는 사가의 의도와 목적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철학적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 정치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Leviathan*의 후반부는 전혀 현재적 적실성(relevance)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정치철학자는 어느 정도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를 현재가 아닌 과거에까지 소급하여 *Leviathan*의 기독교적 종말론이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도 적실성을 갖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의 사상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이는 다시 해석의 왜곡을 가져오는 어떤 악순환적 요소가 여기에서 발견된다.

이와 비슷한 잘못은 전통적 정치사상사에서 그 예를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다. John Locke의 사상은 반역사적 이성주의이며, 이것은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이라든지, 영미적 정치사상은 압도적으로 Locke에서 비롯되는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있다든지 하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사실들을 있었던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역사기술의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한다면 - 물론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어려운 질문이 있지만 일단은 접어두기로 하자 - 정치사상사도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한 역사기술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사상사도 하나의 역사임을 인정한다면 정치사상사가는 철학적이고 현재적인 목적에서 비롯되는 선입견들을 되도록 배제하고 과거의 정치사상을 '있었던 그대로'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 두 가지의 즉각적인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과거의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있었던 그대로 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혹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과거의 정치사상을 있었던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혹자는 이것은 한가한 역사학자의 "골동품 수집가적 호기심"(antiquarian curiosity)<sup>10)</sup>일 뿐이며 좀 더 급박한 학문적 요구와 정치철학자로서의 의무를 부여받은 정치사상사가의 주된 관심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보는 역사학자의 시각과 정치철학자의 시각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역사기술이 상호배타적인 영역에 있음을 인정한다. 역사학자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역사적 사실 그 자체이다. 철학자는 역사의 현재적 의미에 관심이 있다. 정치철학자가 과거의 정치사상에서 어떤 철학적이고 현재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이것은 그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이의 과정에서 설령 역사적 사실이 왜곡이 있다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서 주장되지만 않는다면 - 이것은 철학자가 역사학자의 영역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된다 - 역사학자는 원칙적으로 철학자의 지적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고 하면 역사학자의 요구란 결국 좀 더 엄격한 분업에의 요구일뿐이라고 말할 수

9. J.G.A. Pocock, *Politics, Language & Time* (Univ. of Chicago Press, 1989) Ch.5, "Time, History and Eschatology in the Thought of Thomas Hobbes."

10.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s., 1987, 앞의 책.

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철학자와 역사학자의 학문적 분업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질 수 없다는데 있다. 가령 역사학자가 발굴해낸 역사적 사실들이 아무리 ‘골동품’에 불과하게 보일지라도 이 골동품은 관찰자에게 현재의 미적 감각에 대한 어떤 비평적 시사를 던져줄 수가 있을 것이다. 골동품의 조잡함이 미적 가치기준의 역사적 진보에 대한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거기에서 예기치 않게 발견된 어떤 우아함의 요소가 그의 그러한 믿음을 흔들어놓을 수도 있다. 역사적 사실들은 이처럼 ‘그 자체로서’ 역사가에게 어떤 현재적 의미를 발산하며, 역사가라고 해서 이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역사의 현재적 의미조차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역사가는 ‘골동품 수집가’의 영역을 벗어나 ‘철학자’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

역사학자의 전통적 정치사상사에 대한 비판이 단순한 분업에의 요구를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처럼 그가 정치사상사가의 전통적 영역에 들어가 그의 학문적 시가과 방법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역사가 ‘스스로’ 현재에 대해 말하도록 하는 데에 있지 이를 ‘강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철학자는 과거가 어떻게 현재와 같아질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역사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역사가는 이것은 역사를 보는 하나의 빈곤한 시각일 뿐이며, 오히려 역사의 의미는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다른가, 과거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재로 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고 한다.<sup>11)</sup> Hobbes의 정치사상은 그를 “현대 정치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개조하고 그의 사상을 “현대 (정치)철학의 용어들로”<sup>12)</sup> 재구성함으로써가 아니고, 오히려 그의 원래적 용어와 사상의 뒤에 숨어있는 저자의 의도를 회복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현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의 정치사상을 있었던 그대로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문에 불과하다. 비록 현재적 관심에서 출발하지는 않더라도 역사학자가 발굴해낸 역사적 사실들은 철학자의 ‘사이비 역사’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아니면 최소한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현재적 적실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욱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은 과거의 정치사상을 있었던 그대로 밝히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이 점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 IV. 정치사상사 기술의 역사적 방법에 대한 분석

정치사상사의 역사학적 접근을 주창한 Quentin Skinner와 J.G.A. Pocock은 추구하는 방법들과 초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역사철학자’나 ‘역사이론가’(theorists of history)가 아닌 ‘역사가’(historians)로 지칭하는 데에서 가장 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들이 정의하는 ‘역사가’는 역사적 사실의 탐구에 일차적 관심이 있다. 이에 비해 철학자는 어떤 “실용적인(practical)--정치적, 지식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목적”<sup>13)</sup> 때문에 과거에 관심을 갖는다. 정치사상사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역사는 하나의 역사적 저술을 있었던 그대로, 그 당시의 의미 그대로 읽고자 노력하는데 반하여

11. J.G.A. Pocock, "The Origins of Study of the Past : A Comparative Approach,"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IV, No.2 (1962), p.218.
12. Charles Taylor, "Philosophy and its history," in Richard Rorty et al., eds., *Philosophy i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17.
13. J.G.A. Pocock, "Political Theory, History, and Myth : A Salute to John Gunnell," *Annals of Scholarship*, I, 4 (1980) p.12.

철학자는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역사가는 과거의 정치사상가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들에 관해 무엇을 말했는지에 관심이 있고, 철학자는 그들이 정치의 보편적(perennial) 문제들--특별히 현대의 정치상황에 관계된--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에 관심이 있다. 한마디로 역사가의 관심은 역사를 '기술하는'(to write) 것이고 철학자의 관심은 이를 '오늘에 경험하는'(to live) 것이다.

과거의 정치사상을 있었던 그대로 기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원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정치사상사 연구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정치사상의 고전들을 '원래의 의미대로' 읽는 것이고, 이는 다시 그러한 고전들 속에서 저자들이 수행하는 '언어적 행위'(speech-act), 또는 이에 관한 그들의 '의도'(intention)를 기술하는 것이다.<sup>14)</sup>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상 영위하는 언어생활의 병변한 진리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일상에서 행해지는 발언의 의미는 그 발언이 수행하는 언어행위와 이에 관한 화자의 의도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저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언어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저술의 원래적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그 저술의 언어행위, 곧 저자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 했고 무엇을 성취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과거의 정치사상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저술의 언어행위, 곧 저자의 언어행위적 의도는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는 것일까? 한 가지 사실, 곧 "저술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sup>15)</sup>는 점만은 분명하다. 일상적 언어생활의 예에서 보더라도 발언의 언어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발언의 언어적 의미뿐만이 아닌, 발언을 둘러싼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를 콘텍스트(context)라 부른다.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술의 의미, 곧 저술의 언어행위를 아는 것은 이의 콘텍스트를 아는 것이고, 정치사상사의 역사적 연구란 바로 이 콘텍스트를 복원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14. 여기서 언어적 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Searl, Austin 등이 주창한 언어행위 이론(Speech-act Theory)에 나오는 것으로, 말로써 수행하는 일(things done with words)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 곳에는 얼음이 얇게 얼어 있다"고 했을 때 이 발언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저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서는 안된다'고 하는 경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저술일 수도 있다. 화자는 이 발언을 통하여 '경고' 또는 '저술'이라는 언어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언어행위 이론에 따르면 모든 발언의 의미는 결국 발언자의 이러한 언어적 행위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언어행위에 관한 화자의 '의도'를 말하는 것은 발언의 언어행위가 결국은 화자의 의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의도'라는 단어는 화자의 내면적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동기'(motives)와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 발언의 실제적 언어행위가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언의 의미를 꼭 화자의 의도의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나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발언의 의미를 화자의 의도한 행위(이를 언어행위 이론에서는 '수행행위'illocutionary act라 한다)와 발언이 실제로 성취한 행위(이를 '성취행위'perlocutionary act라 한다)를 다 포함하는 '언어행위'의 차원으로 국한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화자의 의도가 언어행위의 불가결한 요소일뿐 아니라 '수행행위'와 '성취행위'간의 긴장이 모든 비판적 대화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발언의 의미는 결국 화자의 의도와 떼어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하나 중요하게 지적되는 점이 언어행위의 비임의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이다. 즉 특정발언을 통하여 화자가 의도하고 또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언어행위는 화자의 임의적 의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언어적이고 주변적인 상황에 의해 그 가능성의 한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 곳의 얼음은 얇다'라는 발언이 '경고'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언어의 용례가 사회관습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또 발언의 주변적 상황이 이러한 언어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언어의 의미로써 언어행위를 말할 때에는 어떤 간주관적이고 사회적인 무엇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도 '의도'라는 단어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Pocock과 Skinner는 자신들의 정치사상사 연구방법과 시각이 언어행위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언어행위, 수행행위, 성취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William P. Alston, *Philosophy of Language*, 확장제 옮김, 언어철학 (대우학술총서, 번역49)(민음사, 1992) 2장 "의미와 언어사용"을 참조하라. 언어행위 이론에 기초한 Skinner의 정치사상사 연구방법과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James Tully, ed., *Meaning and Context: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 (Princeton Univ. Press, 1988)를 보라.

15. Quentin Skinner, "Some problems in the analysis of political thought and action," James Tully, ed., *Meaning and Context: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 (Princeton Univ. Press, 1988) p.104.



컨텍스트는 정치사상사의 역사적 연구방법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단어이다. 사실 과거의 어떤 정치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의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 컨텍스트가 주로 사상가의 개인적·사회적 배경이나 시대상황의 차원에서 이해되었다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컨텍스트는 압도적으로 저술을 둘러싼 언어적 관습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문법 뿐만이 아니고 언어의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신념과 가치체계 등이 포함된다.<sup>16)</sup> Skinner의 말을 빌리면:

... 저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 동시에 저자의 의도는 그의 저술의 컨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정들과 관습들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정들과 관습들에 대한 지식이 특정 저술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sup>17)</sup>

여기에서 Skinner가 「컨텍스트」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여러 가정들과 관습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화의 패턴, 장면 등”도 있고 “유행하는 장르와 문체,” “가치체계 ...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설, 신념, 태도,” “어휘적 의미, 관용구, 속어,” “사고체계”<sup>18)</sup> 등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어적 관습, 다시 말해 “공통의 어휘, 원칙, 가설, 진리판단의 기준, 문제, 개념의 구분체계 등 여러 저술들을 하나로 묶는 언어적 습관”이다.<sup>19)</sup> 특히 Skinner가 강조하는 것은 가치나 개념을 지칭하는 “규범적”(normative) 단어들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보통 “지배적 사회계층의 행위와 태도들을 기술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화하는”<sup>20)</sup> 기능을 수행한다. 어떤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규범적 어휘들을 둘러싼 논쟁은 지식적 논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논쟁이다. 언어에 관한 의견 불일치는 곧 “사회적 세계 자체에 대한 의견 불일치”<sup>21)</sup>이기 때문이다.

정치사상가에 있어 규범적 어휘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Skinner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말하기를 화자가 무엇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 그러나 이는 정치를 기술하고 평가함에 있어 한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규범적 어휘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누구든 자신의 행위가 권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면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반경은 (규범적 어휘에 의해) 어떤 정해진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를 ... 정당화함에 있어 행위자가 풀어야 할 문제는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규범적 어휘를 기계적으로 뜯어 맞추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어휘에 맞도록 조절하는 일이다. 이는 다시 말해 한 행위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사회의 규범적 어휘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sup>22)</sup>

그러나 언어의 요소가 이처럼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언어가 「컨텍스트」의 전부는 물론

16. 통상적 의미의 사상적 ‘배경’은 말 그대로 사상의 배경설명에만 유용하며 사상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역사학자들은 사상이 사상가의 개인적·사회적 배경의 요소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에 단연코 반대한다. 사상의 배경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언어적 행위는 여전히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이 언어적 컨텍스트를 중시하는 이유는 사상을 초언어적 명상이 아닌 언어행위, 곧 담론으로 보는 그들의 기본적 시각에서 연유한다. 사상을 언어행위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언어적 컨텍스트는 사상의 배경설명이 아닌 사상 그 자체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직접적 단서가 된다.

17. Quentin Skinner, “Hermeneutics and the Role of History,” *New Literary History*, v.7, p.209.

18. *Ibid.*, pp.220-221.

19. James Tully, “The Pen is a Mighty Sword,” James Tully, ed., 1988, 앞의 책, , p.9.

20. Quentin Skinner, “Language and Social Change,” *Ibid.*, p.131.

21. *Ibid.*, p.123.

22. Quentin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Univ. Press, 1978) V.1, pp.xii-xiii.

아니다. 「컨텍스트」는 한두개의 요소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저술의 원래의 의미를 알기 위해 살펴보아야 하는 모든 요소들, 가장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 사회의 여러 특징들”<sup>23)</sup>을 모두 포함한다.

Skinner가 「컨텍스트」를 되도록이면 넓게 정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역사적 저술은 각자만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공통적 「컨텍스트」를 말한다는 것은 역사적 저술들을 비역사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정 저술의 「컨텍스트」가 무엇인지는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 하나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역사가의 역사적 지식과 독창적 사고가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통의 역사가에 있어 한 저술의 타당한 「컨텍스트」를 찾는 것은 그 저술이 씌어진 장소와 시대의 모든 역사적 상황--언어적 상황을 포함하는--을 광범위하게 고찰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고통스런 작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Skinner에 비해 Pocock은 「컨텍스트」로서의 언어적 요소를 압도적으로 중시한다.<sup>24)</sup> 그러나 Pocock이 「언어」라고 할 때 이것은 Skinner가 말하는 「규범적 어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Pocock이 정의하는 바 「정치언어」(political languages)란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치적 태도와 가치들을 암시하고 정치적 권위의 분배와 관계되는 특별한 “관용구, 비유법, 어휘와 문법체계, 정치에 대한 談論의 형태들”<sup>25)</sup>을 말한다. 현대 서구정치학(political science)은 현재 범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 정치언어이지만, 「정치언어」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어휘와 문법체계가 현저히 달랐다. 중세 스킨라 철학, 르네상스 美學, 聖書註釋學, 영국 관습법, 시민법, 고전적 공화주의, 공동체적 급진주의 등은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나타나는 「정치언어」의 주요한 예들이다. 고대 중국에서의 詩學이나, 程朱學, 陽明學, 考證學 같은 유학의 주요 전통들도 정치언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비언어적 정치언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유교사회에서의 禮와 같은 것이다.

Pocock에 의하면 각 사회에는 이같은 독특한 정치언어의 체계뿐 아니라 그것이 정치언어로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구성원들간의 묵시적 전통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 범칙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 詩의 형태에 관한 談論은 당사자들에 있어 그 자체로서 정치적 제도, 가치 그리고 정치적 권위의 배분에 관한 특정한 태도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것은 플라톤이 詩의 형태와 국가의 政體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개인적 심성과 사회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한 복잡한 이론을 필요로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sup>26)</sup>

아무튼 각 사회에는 정치언어의 형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구성원들간의 합의가 존재하는데, Pocock은 이를 언어게임(language games)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한 사회의 政治談論(political discourse)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담론의 당사자들간에 벌어지는 일종의 언어게임(language game)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게임」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은 담론의 「유희적」 성격을 말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게임의 규칙성(즉 게임에는 규칙이 있다는)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정치언어

23 Ibid., p.x.

24 언어와 정치사상사에 관한 John Pocock의 저술, 논문, 비평들의 목록은 Iain Hampsher-Monk, "Review Article: Political Languages in Time - The Work of J.G.A. Pocock,"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4 (89-116) 달미에 잘 정리되어 있다.

25. J.G.A. Pocock, "The Concept of a Language and the *metier d'historien*: Some Considerations on Practice." Anthony Pagden, ed., *The Languages of Political Theory in Early-modern Europe* (Cambridge Univ. Press, 1987) p.21.

26. J.G.A. Pocock, 1989, 앞의 책, p.46.

의 게임」은 그 결과가 당사자들의 정치적 권위분배에 영향을 미치며 그렇기 때문에 「말의 유희」가 될 수는 없다.

정치담론이 일종의 언어게임이라면 거기에는 게임의 당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규칙은 우선 정치언어 패러다임의 설정에 관계되고, 다음으로는 그 언어체계 내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 그리고 어휘의 의미를 규정한다. 규칙이 없는 게임은 생각할 수 없듯이 정치언어 게임의 이러한 규칙들이 없으면 의미있는 政治談論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규칙들은 보통 그 사회의 오랜 정치적 전통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談論의 당사자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언어행위의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동시에 이 「규칙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게임」의 한 부분이다. Pocock의 말을 빌면:

(한 사회에는) 政治的 談論의 세계와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규정하는 하나의 우세한 (정치)언어 구조가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자주 억압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의 언저리 그리고 숨겨진 뿌리에는 언제나 애매모호함, 불합리성, 그리고 모순의 비옥한 땅이 있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린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그리고 말의 행위(speech-acts)와 다른 대화의 행위들 그리고 자체로서 대화로 여겨지는 다른 행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삶의 定型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언어에 조화되기는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역할을 바꿔보기도 하고 모순과 否定을 폭로하기도 한다. ... 해방자로서의 광대의 이미지가 이런 것이다.<sup>27)</sup>

한 사회의 정치언어는 어떤 점에서 사상가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그에 있어 자기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한 한 사회의 정치언어는 그 안에 사는 사상가의 개인적 의도(intention)에 앞선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의 말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그가 무슨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sup>28)</sup>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상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언어의 세계”를 찾아내어 그것이 “패러다임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여 그의 발언의 종류와 양태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sup>29)</sup> 예를 들어,

그가 사는 사회가 정치에 관해 말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적 기원이나 언어적 기능이 다른 여러 관용구들을 먼저 찾아낸다. 그러면 그가 이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비판하고 있는지 ... 그들이 수행하는 정치적 지식적 기능이 무엇인지, 어떤 가정과 암시들이 그들에 내포되어 있는지 ... 하는 것등을 알아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가 그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관용구들을 사용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Pocock이 이처럼 「정치언어」의 차원에서 「컨텍스트」를 말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Skinner조차도 과연 한 저자의 의도가 그의 「정치언어」로만 설명이 가능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Pocock이 정치사상을 압도적으로

27 John Pocock, "Verbalizing a Political Act," in Michael Shapiro, ed., *Languages and Politics* (Yale Univ. Press, 1981) pp.39-40.

28 J.G.A. Pocock, 1989, 앞의 책, p.25.

29 위의 책, 같은 페이지.

30 위의 책, pp.25-26.

언어행위의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가 상상하는 정치사상가는 주어진 정치언어의 세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행위의도를 설정하고 역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언어를 구사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에 비해 Skinner의 정치사상가는 문체나 표현양식 따위의 '사소한' 언어적 측면보다는 사상적 행위의 총체적 콘텍스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흐름과 이를 대변하는 규범적 어휘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정치사상가의 주된 관심과 사상의 차원에 대한 Skinner와 Pocock의 서로 다른 이미지는 사실 서로 배치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정치사상의 언어행위는 Pocock의 '미시적' 행위와 Skinner의 '거시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의 차이는 결국 정치사상적 언어행위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치사상가와 정치사상의 역사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방법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Skinner는 정치사상의 기본적 콘텍스트로서 각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흐름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연구의 초점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흐름의 실체를 파악하고 각 사상의 지류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흐름의 생성과 방향에 관계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 점에 대해 그는 근대정치사상의 원류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본서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역사는 저작들보다는 이데올로기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런 테두리를 알아야만 여러 정치사상가들의 저술들을 비로소 올바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31)</sup>

그러나 과연 「이데올로기」가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Skinner가 「근대정치사상의 원류」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16세기 유럽에는 공화주의와 「저항의 이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적 흐름이 있어 이것이 후에 「국가」라고 하는 근대 정치사상의 큰 물줄기를 형성했다고 보지 않는다. Kenneth Minogue같은 이는 Skinner가 정치사상사 연구의 비역사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가 「근대정치사상의 원류」에서 보여준 것은 “국가의 근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비역사적 무엇(unhistorical something)일뿐”이라고 통박하고 있다.<sup>32)</sup>

이런 점에서 본다면 Pocock의 이론은 미시적이기는 하나 실체의 파악이 좀 더 용이한 정치사상사 기술의 가능성을 좀더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Pocock은 이데올로기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역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식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데올로기의 「언어」일뿐이다.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상황과 언어간에 긴장상태--Pocock이 「위기」(crisis)라 부르는--가 초래될 때 있게 되는 현상으로, 「정치사상사」라고 하는 것은 사상가들이 이러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언어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언어적 패러다임을 탐구하는 역사”이다.<sup>33)</sup>

마키아벨리적 전환 *The Machiavellian Moment*은 정치언어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근대 서구 정치사상사를 다시 기술한 그의 대표적 업적이다. 그가 同書에서 말하는 정치사상사 연구는 “여러 정치체제들의 특수성을 논하는데 사용된 개념적 어휘체계들을 찾아내어, 이들이 어떤 한계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한계와 시사점은 어떻게 기능했는가를 탐구

31 Quentin Skinner, 1978, 앞의 책, V.1, p.xiii.

32 Kenneth Minogue, "Methods in Intellectual History : Quentin Skinner's *Foundations*," James Tully, ed., 1988, 앞의 책, p.184.

33 J.G.A. Pocock, 1989, 앞의 책, p.23.

하고, 이러한 개념적 체계들, 그들의 用例,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시간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했는지를 고찰하는”<sup>34)</sup>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그가 마키아벨리적 전환에서 다루는 ‘개념적 어휘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공화주의의 이론이다. 동서에서 그는 르네상스 시대 市民的 人本主義者들에 의해 부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共和主義 이론이 Machiavelli 시대의 플로렌스, 17세기 시민전쟁시의 영국, 그리고 독립전쟁 시대의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각각의 정치적 상황을 규정하고 이의 물줄기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는 그것이 시사하는 정치체의 구조와 권력의 배분에 있어 어떤 핵심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의 구체적 표현은 그것이 적용되는 개개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Machiavelli의 플로렌스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행동원리로, Harrington의 영국에서는 토지분배와 상업의 원리로, 그리고 Madison의 미국에서는 정치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의 원리로 共和主義가 원용되었다. 뿐만 아니고 각각의 정치상황, 그리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언어들과의 「게임」의 역학관계 속에서 共和主義의 「개념적 체계」와 이의 「用例」가 또한 바뀌어 갔다고 하는 것이다.

‘공화주의의 역사’는 그러나 서양정치사상사의 여러 물줄기 중의 하나일 뿐이다. Pocock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사상사에 관한 역사학적 작업의 일차적 목표는 ‘정치사상사’라는 허구적 개념에 함몰되어 온 정치언어적 역사의 물줄기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들을 묶어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의 대역사(grand history)를 기술하는 것은 아마도 철학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철학자들이 쓰는 ‘대역사’는 사이비 역사(pseudo-history)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로서의 대역사 기술은 아마도 Skinner적 방법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근대사상의 원류는 비록 그가 가정하는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좀 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대역사 기술의 시험적 업적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V. 결론 : 정치사상사 연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정치사상사의 역사적 연구가 태동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의 시각과 방법이 정치사상사 기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Skinner와 Pocock의 역사적 연구방법은 정치사상사 연구에 현실적 목적과 철학적 방법을 당연시해왔던 기존의 학문적 진통에 일대 혁명을 몰고 왔으며, 나아가 사상의 담론적 성격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80년대 들어 정치사상사 연구에 또 한번의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sup>35)</sup>

34 J.G.A. Pocock, *The Machiavellian Moment* (Princeton Univ. Press, 1975) p.57.

35. Martin Jay, "Should intellectual history take a linguistic turn?," in LaCapra, ed., *Modern European Intellectual History*, Ch.3; John E. Towes, "Intellectual History after the Linguistic Turn,"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XCII(1987), pp.879 ff. 1980년대 이후 정치사상사 연구는 새로운 철학사조의 유행과 더불어 또 한번의 전기를 맞고 있다. 해석학(Hermeneutics), 계보학(Genealogy), 고고학(Archaeology, 전통적 의미가 아닌 Foucault적 의미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등, 의미나 계보적 상호관계조차 분명하지 않은 새로운 인식론적 시각과 방법들이 인문 사회과학의 각 영역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사상사의 실체에 대한 인식과 이의 기술양식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를 ‘언어적 전환’이라 부르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경향이 방법론적으로 Wittgenstein과 Heidegger에 의해 촉발된 언어철학의 혁명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언어적 대전환’은 정치사상사의 역사적 연구방법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학자들이 발굴해낸 정치사상사의 담론적 성격을 철학자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새로이 조명해보려는 노력이 바로 80년대 ‘포스트모던적’ 지성사 연구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은 ‘철학’이 아닌 ‘역사’로서의 정치사상사를 기술한다는 것이 과연 역사학자의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외에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정치사상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으로 어떤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또 이에 직접적인 해답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은 우리의 정치적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 역시 과거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현재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의 기술이 어떤 차원에서든 전혀 현재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로서의 정치사상사 기술은 분명 현재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전혀 현재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정치사상적 논쟁이 언제나 과거의 정치사상을 근거로 하는 한에 있어서 역사학자들이 발굴해낸 과거 정치사상의 역사적 사실들은 논쟁의 당사자들에게 언제나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 차원에서뿐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 엄격한 역사학자적 관점에서 서양과 우리의 정치사상사를 다시 보아야만 하는 더욱 절박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정치사상적 또는 정치적 논의가 흡스적 무정부상태에 놓여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정치사상사의 역사적 연구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릇 어느 사회에서든 정치적 논쟁이 의미와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언어의 의미, 다시 말해 언어적 가정, 가설, 용례, 진리판단의 준거, 그리고 그것이 암시하는 정치적 제도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 Pocock이 말하는 정치언어적 게임의 규칙 - 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합의로써 언어와 의식, 행동, 그리고 제도가 조화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정치체제를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혹자는 말하기를 한국정치는 아직도 서구에서 전파된 정치의 개념체계와 제도가 아직도 우리에게 뿌리깊이 남아있는 전통적 정치의식과 행동에 괴리됨으로써 야기된 일종의 무정부상태에 있다고 한다.<sup>36)</sup> 이것은 곧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언어적 혼란이며, 흡스가 말하는 자연상태의 본질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흡스의 자연상태는 본질적으로 언어의 혼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혼란은 대화의 불가능을 초래하며 이로부터 가치체계의 도괴, 타락, 불안정, 무자비한 힘에의 동경 같은 정치적 해악이 유발된다. 한국정치 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정치의 언어적 혼란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것을 흡스의 ‘리바이어던’에 맡길 수는 없다. 정치언어를 떠맡치는 의식과 행동은 그 어떤 엄청난 폭력에 의해서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거나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그럴 수 있다 해도 우리는 그러한 독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정치언어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일을 요하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합의에 앞서 우선은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바람직한 정치언어의 의미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사상가 또는 정치철학자들이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듯이 언어를 분석철학적으로 탐구하여 이의 보편타당한 의미를 규정하려는 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며 오히려 의미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언어는 언제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언어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사상가가 해야 할 일차적 과제는 그러므로 언어의 혼란된 의미를 ‘해체’하여 이것이 우리와 서양의 정치사상사에서 어떤 ‘계보’에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사상사의 역사적 연구가 지향하는 바이고 우리가 이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목적에서 우

36. 이용희, *일민국제 정치학(상)*(박영사, 1962), 79쪽 참조.

리와 서양의 정치사상사를 다시 쓰고자 할 때 Skinner나 Pocock이 제시하는 역사적 연구의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필자나 관심있는 학자들이 수행해야 할 앞으로의 학문적 과제에 속한다.